이 주소록은 2024 년 12월에 대한 주기도문, 시 주제 / 12월 주제 / 12월 시 / 12월 시 제목 / 12월 시 번호 / 12월 시 제목 / 12월 시 번호 / 12월 시 제목 / 12월 시 번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썩지 않는 것에 대한 영혼의 갈증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생명의 샘물,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 샘물을 마시라고 초대하셨습니다.” DA 453.4

“The attention of the people was arrested. That clear, penetrating voice conveyed his words to the farthest bounds of the congregation. What effect did they have?—Many of the people therefore, when they heard this saying, said, 'Of a truth this is the Prophet. Others said, This is the Christ. But some said, Shall Christ come out of Galilee?' Unbelief arose in many minds, because they were reasoning upon false pretenses. In their ignorance they had received hearsay, and supposed that Jesus had been born in Galilee. But he was born in Bethlehem. Some of the priests and rulers would have taken him, but they dared not lay hands on him in so public a manner. The people were not of the same mind as the priests and rulers. The latter sent officers to take Jesus, and stop that voice which was awakening so great an interest in that immense gathering. The officers came into the Saviour's presence; they heard his words, they looked upon his face, and it was as if glorified. His words spoke directly to their hearts, and they forgot their errand, and returned without Jesus. The priests and rulers asked, 'Why have ye not brought him?' The answer came promptly, ‘Never man spake like this man.’” ST July 23, 1896, par. 3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분명하고 관통하는 목소리는 회중의 가장 먼 곳까지 그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진실로 이분은 선지자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되,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실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으로 추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지한 상태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과 통치자 중 일부는 그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감히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에게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예수님을 데려가서 그 거대한 모임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음성을 막으라고 장교들을 보냈습니다. 장교들은 구세주의 면전에 이르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직접 와 닿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부름을 잊고 예수님 없이 돌아갔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왜 그분을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즉시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였다.” ST 1896년 7월 23일, 파. 3

11월 8일 금요일

Further Thought

더 깊은 연구를 위해

“The Pharisees on first coming into the presence of Christ had felt all this reverence, all these convictions; their minds and hearts were deeply moved. With almost irresistible power the conviction was forced upon them that 'never man spake like this man.' Had they yielded to the Spirit's influence, they would have received Jesus, and would have advanced from light to a greater light; but they wrapped their robes of self-righteousness about them, and trampled down the convictions of conscience. The Pharisees answered the officers with scorn and contempt: 'Are ye also deceived? Have any of the rulers or of the Pharisees believed on him? But this people who knoweth not the law are cursed.' Here was one who was the very foundation of the Jewish ceremonies, one who made the law, one who on Mount Sinai proclaimed the law, one who knew every phase and principle of the law. But he was unrecognized and unacknowledged by the leaders in Israel." ST July 23, 1896, par. 5

“바리새인들은 처음 그리스도의 면전에 들어섰을 때 이 모든 경외심과 확신을 느꼈고,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거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이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화에 굴복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자기 의로움의 옷을 입고 양심의 신념을 짓밟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교들에게 경멸과 경멸로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속았느냐? 통치자 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이 백성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 유대인 의식의 기초가 되신 분, 율법을 만드신 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 율법의 모든 단계와 원리를 알고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896년 7월 23일, 파. 5

“Nicodemus, who went to Christ by night, had received light. The lessons of Christ were as seed dropped into the heart, to spring up and bear fruit. A light had been kindled that would increase and shine brighter and brighter to the perfect day. The words of Nicodemus carried weight with the rulers and Pharisees; for he was chief ruler among the people, and stood high in the Sanhedrin. He said, 'Doth our law judge any man, before it hear him, and know what he doeth?' They answered him with bitter derision, 'Art thou also of Galilee? Search, and look; for out of Galilee ariseth no prophet.' Had he not been searching the prophecies? had he not heard Christ himself? He could have testified, with the officers sent to arrest Jesus, 'Never man spake like this man.' The lesson given that night to Nicodemus was for him as a light shining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 and the day star arise in the heart. Who were the deceived ones?—The men who stifled conviction, who turned away their ears from hearing the truth, and were turned unto fables.” ST July 23, 1896, par. 6

“밤에 그리스도께로 간 니고데모는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완전한 날까지 점점 더 밝고 환하게 빛날 빛이 점화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은 백성의 최고 통치자였고 산헤드린에서 높은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게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율법이 그의 말을 듣기 전에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그가하는 일을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고 비웃으며 그에게 대답했다. 찾아 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예언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장교들에게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교훈은 날이 밝을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같은 것이었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새벽 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속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신념을 억누르고 진리를 듣지 않고 귀를 돌린 사람들, 우화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ST 1896년 7월 23일, 파. 6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